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91.5	16.5	130,000	3.6	16.6	22.1	35.5	90.6	43.4	0.6	0.6
현대중공업지주	6,302.9	20.7	387,000	0.7	0.5	5.3	1.6	52	4.4	0.7	0.6
현대미포조선	687.9	5.2	67,400	7.7	4.5	-8.3	-40.9	64	5.6	0.6	0.5
현대건설기계	1,264.2	8.7	128,000	3.6	-0.8	-8.9	-24.3	8.1	6.0	0.9	0.8
삼성중공업	4,964.4	18.1	7,880	0.1	12.1	132	21.8	49.7	24.7	0.5	0.5
대우조선해양	3,612.8	8.8	33,700	0.9	18.2	41.3	142.4	8.4	17.9	1.0	0.9
현대미포조선	1,972.0	9.6	98,600	1.5	8.2	17.8	25.3	21.3	15.4	0.8	0.7
한진중공업	267.8	6.9	2,525	-0.2	-1.4	-17.2	-23.7	50.8	12.7	0.4	0.4
현대엘리베이터	2,919.5	23.6	107,500	1.9	3.4	3.4	97.6	19.0	18.5	2.6	2.3
두산밥캣	3,784.4	26.0	37,750	2.9	8.5	23.3	6.8	13.8	13.0	1.1	1.0
현대로템	2,579.8	2.4	30,350	0.7	-3.8	-0.3	61.9	39.1	26.7	1.7	1.6
하이록코리아	319.2	48.9	23,450	-0.6	-3.3	-11.8	4.2	10.6	9.7	0.9	0.8
성광밴드	361.8	16.3	12,650	-0.8	11.0	12.4	26.8	1,118.2	45.4	0.8	0.8
태광	375.0	13.3	14,150	-2.1	10.5	19.9	17.4	84.5	41.3	0.9	0.9
두산중공업	1,733.8	15.0	14,800	-1.0	-0.3	-4.5	-3.6	24.5	8.9	0.5	0.5
두산인프라코어	2,046.2	20.1	9,830	0.1	-2.2	3.1	13.1	6.6	6.1	1.1	0.9
HSD엔진	146.5	4.3	4,445	-1.0	18.5	9.8	73.0	-17.1	-22.6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4,586.2	14.6	47,050	3.6	16.9	15.5	-0.8	39.3	29.0	3.9	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79.1	11.8	26,500	2.7	10.2	1.0	-25.5	34.3	18.8	0.6	0.6
LIG넥스원	743.6	8.4	33,800	1.8	7.3	-27.0	-43.5	36.1	17.3	1.2	1.2
태웅	282.1	4.7	14,100	-1.7	-7.8	-13.0	-27.1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11.6	5.2	7,840	-0.4	8.9	6.5	55.2	-40.2	21.0	27	25
한국기본	294.5	14.0	6,700	1.5	10.7	4.7	25.0	77.7	20.6	0.9	0.9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confirmed for Kwispaa FEED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Steelhead LNG에서 Kwispaa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ASLNG 2기에 대한 FEED 계약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계약규모는 5억달러로 내년 초부터 설계가 시작될 계획. 또 발주처는 액화플랜트 FEED의 Shortlist로, Black & Veatch-삼성중공업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상황임. (Upstream)

Karamehmet being linked to aframax order at HHIC

터키선주 Karamehmet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aframax급 탱커 4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11.3만DWT급 탱кер로, 2020년 하반기 인도 예정임. 척당 4.5천만달러로, 스크러버 장착은 2백만달러가 추가 소요될 전망임. 해당 선박은 삼강조선소에 발주했다, RG발급 실태로 취소됐던 물량으로 알려짐. (TradeWinds)

현대중공업지주, 中에 산업용 로봇 공장 짓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중국 하공즈녕 사와 산업용 로봇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양사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연 2만대 생산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생산된 산업용 로봇은 중국 내 상하이 및 홍콩지역에 2022년까지 1.7만대 이상 판매될 전망임. (헤럴드경제)

삼성重 노사, 3년차 임단협 마무리…기본급 동결·격려금 지급

삼성중공업은 2016~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의 노조 격인 노동자협의회가 임단협 점정합의안에 대한 전 사원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 66.1%로 가결됨.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등이 포함되었고,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약속함. (머니투데이)

Tsakos teams up with HMM for potential feeder boxship order

그리스 Tsakos는 컨테이너선 선복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현대미포조선에 2,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계획함. 현재 두 회사는 건조와 관련해 협의 중으로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Tsakos가 용선계약이 없는 투기성 발주를 하지 않았고, 현대상선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전망임. (TradeWinds)

Blue-chip Greek trio vie to supply Chevron newbuilds

Chevron과 5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그리스 선사들은 suezmax급 탱커를 발주할 계획임. 3개 선사 중 Maran Tanker는 대한조선, Tsakos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CMM은 현대중공업과 접촉했다고 알려짐. 스크러버 장착을 포함해 선사는 6~6.5천만달러로 예상되며 2020년 인도를 계획함. (TradeWinds)

Hunter Group aiming to score with speculative DSME order

대우조선해양에 VLCC 7척을 발주한 Hunter Group 관계자는 해당 발주가 투기적 발주임에도 높은 수익률을 전망함. 2020년 VLCC 공급은 690척인 반면 수요는 701척으로, VLCC 11척이 부족할 전망임. VLCC 수급에 따라 운임상승이 기대되며, 동시에 스크러버 장착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계획임. (TradeWinds)

Maersk takes next integration step

글로벌 1위 컨테이너선사 Maersk는 내년 1월부터 합병했던 물류회사 Damco's Supply Chain Service와 Ocean Product를 모두 Maersk란 이름으로 통합할 계획임. Maersk는 글로벌 종합 컨테이너 및 물류회사를 꿈꾸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지역 물류회사 브랜드를 통합하는 중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0%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